

# DAESH
## (다에쉬)

본인들을 '이슬람 국가'(IS)라고
칭하는 테러 조직의
숨겨진 진실

# DAESH
# (다에쉬)

본인들을 ‘이슬람 국가’(IS)라고
칭하는 테러 조직의
숨겨진 진실

DİYANET İŞLERİ BAŞKANLIĞI

터키 종교부 출판사: 1639
국민 도서: 376

코디네이션
종교출판총국

수집가
종교부 최고위원회 종교 업무 총국
종교 업무 총국

인쇄
İleri Basım Matbaacılık A.Ş.
B. Evler Mah. F.Çakmak 2 Cad. Güzelşehir Sit. 22 Villa No: 1 ANP/22
B.Çekmece / İSTANBUL Tel: +90 212 454 35 10
Sertifika no: 41157

1판, 앙카라 – 2019

작품 검수 협회 결정: 28.06.2019/57

ISBN: 978-605-7730-29-9
2019-34-Y-0003-1639
인증 번호: 12930



연락처

종교출판총국
외국어 및 방언 간행부
Dini Yayınlar Genel Müdürlüğü
Yabancı Dil ve Lehçelerde Yayınlar Daire Başkanlığı
Üniversiteler Mah. Dumlupınar Bulvarı
No:147/A 06800 Çankaya/ANKARA
전화: +90 312 295 72 93 - 94
팩스: +90 312 284 72 88
이메일: yabancidiller@diyanet.gov.tr

IS 아니라, DAESH
(다에쉬) 라고 부르는
이유:본인들을 이슬람
국가를 뜻하는 IS
라고 소개하는 DAESH
라는 테러조직은 세계
언론에서도 이와 같은
이름으로 자주 언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슬람과 무관한 이
테러조직을 IS 즉
'이슬람 국가'라 칭하는
것은 옳지 않기에 IS(
이슬람 국가)대신
DAESH라 칭하는 것을
선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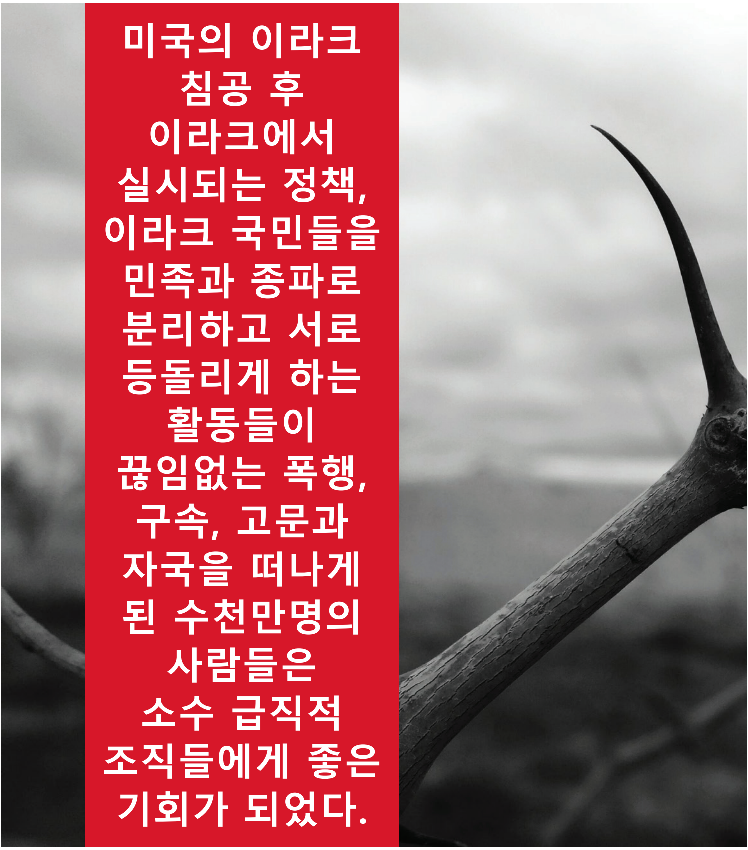
종교적이라고 하며
이슬람을 대표한다고
주장하면서 불화를
일으키며 피를
흘리면서도 사실은
자신의 이득을 위하여
무슬림들의 물질적 및
정신적 존재를 착취하는
테러 조직들은 가장 큰
피해를 무슬림 사회와
터키의 단일성과 연대에
또 터키의 미래와
젊은이들에게 주고
있다.

오늘날 종교를 착취함으로써 젊은이들을 속이고 힘 모으며 자신의 이념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종교를 남용하는 테러 조직 중 하나가 DAESH (다에쉬=IS) 이다. 시리아와 이라크에 위치하고 있는 이 조직은 경계 이웃 나라인 터키의 젊은이들을 인력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본다. DAESH와 같은 조직들과 싸우는데 제일 중요한 대책은 이슬람을 옳바르게 파악하게 하는 것과 이 조직들이 어떤 이슬람적 가치들을 이용하면서 사람들을 착취하는지 알려주는 일이다. 이 글은 사람들에게 종교를 착취하는 것의 위험성을 환기시키고 이슬람에 대한 신뢰할 만한 기초 자료들에서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 종교를 착취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착취라는 것은 누군가의 또는 어떤 그룹의 좋은 의도를 악용한다는 뜻이다. 종교를 착취하는 일은 종교를 악용하는 것, 종교와 관련된 개념들과 가치를 통하여 사람들을 속이며 경제적 또 정신적 이득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유사 이래 다양한 개인들과 조직들이 종교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악용하면서 갖가지 이득을 얻고자 하였다. 종교적 상업을 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다. 이 사



**미국의 이라크 침공 후 이라크에서 실시되는 정책, 이라크 국민들을 민족과 종파로 분리하고 서로 등돌리게 하는 활동들이 끊임없는 폭행, 구속, 고문과 자국을 떠나게 된 수천만명의 사람들은 소수 급직적 조직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었다.**

람들과 조직들은 때로 꾸란 구절들과 하디스들의(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을 담은 전승록) 의미를 왜곡하고 잘못된 문맥에 사용하였다. 때로는 자신의 악의적인 의도의 도구로써 잘못 해석을 하며 사회에 알렸다. 이들 중 일부는 이슬람 자체를 직접적으로 겨냥하여 사람들이 이슬람으로 향하지 못 하도록 종교적 개념의 뜻을 비



우고 이 개념을 상실시키는 것을 한 방법으로 채용하였다.

예언자 무함마드( 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생전에 메디나에서 마스지드 알-나바위 (Masjid al-Nabawi) 대신 다른 마스지드(성원)를 지은 것과 무슬림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는 것은 종교를 착취하는 행위의 대표적인 예다. 마스

지드 알 디라르(Masjid al-Dirar)라고 알려져 있는 이 단체에 대하여 꾸란에서는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하나의 사원을 세워 해악과 불신을 조성하고 믿는 신도들을 이간질시켜 하나님과 선지자에 대항하려 하는 자들이 맹세하여 말 하길 우리는 선행 외에는 다른 의도가 없다고 말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실 것이니라.' (Tawba, 9:107) 하나님께서, '그 곳 내에서 절대 예배하지 마라.' 하셔서 그는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를 경고하셨다. 무슬림들 사이에 불화를 일으키는 이 사건을 심판의 날까지 언제나 발생할 수 있는 착취와 불화들에 대하여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예로 보여주셨다. 이 마스지드를 지은 자들에 대하여 예언자 무함마드(그 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의 강경한 반응은 오늘날 종교를 남용하려고 하는 자에게 어떤 태도로 대해야 할지 보여주었다.

이슬람 역사에서 꾸란이 악용되어 이루어진 종교가 착취되는 것에 대한 가장 아픈 예들 중 하나는 시핀 전쟁 (Battle of Siffin) 에서 이루어졌다. 하리지파라고 알려져 있는 폭력적인 운동은 이 전쟁에서 꾸란을 지키는 사람인 척하면서 사실은 큰 불화를 일으켰다. 또 그것과 비슷한 예

로 굴랏이라는 극단적인 시아파 집단들이 이탈적인 생각들을 꾸란의 구절(아야)로 지지하고자 한다. 최근 이슬람 세계에서 생긴 아마디야, 바브교, 바하이신앙과 드루즈교와 같은 집단들이 종교를 착취하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

기회주의자들은 꾸란뿐만 아니라, 전달된 이야기들,사하바와 (예언자 무함마드의 교우) 역사적 인격의 삶의 예 또는 이슬람 가치관과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 이전처럼 오늘도 무슬림들과 반대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다른 이름, 간행물 및 논설로 이슬람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과 조직들이 실제로 그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다. 종교에 초청했다고 주장하는 이 거짓말쟁이들은 실제로는 무슬림들의 순수하고 깨끗한 감정들을 악용한다. 그 사람들은 이슬람의 주요 출처와 모순되며 비이성적이고 의미없는 말들과 이야기, 희망, 거짓된 사왑(저승에서의 보상) 약속으로 사람들을 속이면서 그들의 돈, 자녀, 시간, 심지어 삶을 훔치고 있다.

종교를 착취한다는 문제는 오늘날 무슬림들의 단결과 연대를 위협하는 심각한 안전 문제로 변질되었다. 종교적이고 이슬람을 대표한다고 주장하여 불화를 일으키고 피를 흘리는 FETO, DAESH, 알카이데, 보

DAESH는 한 면에서 국제적 세력과 권력투쟁 또 무기와 석유 거래가 만드는 꼭두각시가 된 조직이다. 또 한편으로 특히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과 이슬람의 축복 메시지 사이에 벽이 되는 것을 목적하는 심리적인 수단이다.

코 하람 등 테로 조직들은 제일 큰 손해를 무슬림 사회의 전체성과 연대성,사람들의 미래와 젊은이들에게 준다.

## DAESH는 어떻게 발생했는가?

DAESH와 같은 폭력적인 조직들이 최근에 늘어나는 것과 무슬림 청년들이 이 조직에 속는 것은 종교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이유 때문이다. 미국의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침공, 9.11 테러, 팔레스타인 문제의 부해결, 아랍의 봄에서 보았듯 민주적인 목소리들이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진압되는 것과 세계는 이슬람 세계가 겪고 있는 불의에 눈 감는 것이 무슬림권 나라들에서 자포자기와 절망을 퍼뜨린다. 기본권조차 억압되는 온갖 압력 아래서 살게 된 사람들의 분노와 복수심이 착취되는 길을 연다. 특히 올바른 이슬람교 교육을 받지 못한 젊은이들을 현재 자신들의 상태를 바꾸지 못 한다는 것과 불공평함과 싸우는데 혼자 있다는 것의 아픔으로 쉽게 속을 수 있게 된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 후부터 그 지역에서 실시되는 정책, 이라크 국민들을 민족과 종파로 나누고 서로 등돌리게 하는 활동들이 끊임없는 폭력, 구속, 고문들과 자국을 떠나게 된 수천만 명의 사람들은 소수 급진적 조직들에게 좋은 기

회가 되었다. 지극한 가난함과 힘의 부족은 DAESH이라는 비인간적인 테러 조직이 나타나기 위하여 전면적으로 좋은 배경을 만들었다.

DAESH는 한 면에서 국제적 세력과 권력투쟁 또 무기와 석유 거래가 만드는 꼭두각시가 된 조직이라는 사실도 있다. 또 한편으로 특히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과 이슬람의 자비의 메시지 사이에 벽이 되는 것을 목적하는 심리적인 수단이다. 뒤에서 이해관계에 근거한 교활하고 잔인하고 야만적인 동맹이 있다.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과 민족을 불문하고 인류 전부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는 나머지 테러 조직들처럼 DAESH도 불신적 및 비양심적인 수단으로 이익을 얻는다.

오늘날 자신을 이슬람과 하나님의 용감한 전사로 소개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는 이 싸움에서 인류를 괴롭히고 있다. 어떠한 인간적 및 윤리적 가치를 중시하지 않으며 양심과 신성한 가치관이 없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이념을 위하여 모든 것을 파괴하고 없앤다. 그리고 사실은 자신이 이용당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

손에 피가 묻은 이러한 조직은 무슬림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나타나는 것과 이슬람적 요소들을 사용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조직은 주변에 있는 모

든 국가들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과 경제적 자원에 편하게 이를 수 있다는 것이, 이슬람 사회와 청년들을 속이려고 하는 깊은 허구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DAESH 및 그와 비슷한 조직들이 다른 종교가 있는 지역에서 생겼더라면 틀림없이 그 종교를 이용하였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직들이 종교적 이해의 소산이나 이슬람을 다양하게 해석하는 결과라고 평가될 수 없다. 왜냐 하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사실이 아닌 종교적 담화들이 실은 다양한 목적으로 폭력을 위한 수단일 뿐이기 때문이다

## DAESH에는 누가 참여하는가?

조직의 구성원들은 대부분 청년들이다. 이 청년들은 4 가지 그룹으로 누뉜다:

첫 번째 그룹은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던 지역에서 폭행과 야만적인 분위기에서 자라고 아주 가난한 삶을 살았으며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제대로 살지 못 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글을 읽고 쓸 줄도 모르고 아무런 종교 교육도 받지 못 하였고 심지어 몇년 동안 억압과 폭압을 당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조직에 참여하는 두 번째 그룹은 '식민지 이주민들' 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민자들의 자녀들이다. 이 아이들은 유럽에서 태어나고 자란 이들이며 사회로부터 소외당하며 무시당하여서 자존심이 상한 이들이다. 자신을 표현하지도 인정받지도 못 한 이 청년들은 이슬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 심지어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어서 급진적인 종교적 담화에 쉽게 속는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조직에 참여하는 세 번째 그룹은 이슬람을 선택한지 얼마 되지 않은 자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아직 이슬람을 신뢰할만

조직에 속해 있는 또 다른 그룹은 '식민지 이주민들' 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민자들의 자녀들이다. 이 아이들은 유럽에서 태어났고 또 거기에서 자랐다.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무시당해서 자존심이 상한 이들이다.

한 기초 자료 또는 좋은 의도를 갖고 지식이 많은 사람들한테 배울 기회를 못 찾은 청년들이다. 이들은 이슬람이 자비의 종교인지를 알지 못 하였다. 지혜와 도덕, 균형과 예지력을 가지지 못 한 이 청년들은 종교적 지식이 부족하므로 테러 조직들의 이념적 함정에 쉽게 빠진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DAESH에 참여하는 네 번째 그룹은 이 조직의 계층 구조에 속하지 않고 이슬람의 지하드, 샤하다(순교) 및 천국과 같은 고상한 목표들을 이 조직의 명령과 활동을 통하여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된 이들이다. 이 조직은 청년들의 종교적 민감성과 열정을 악용하며 이슬람의 개념들을 이용하여 지은 문서들로 그들을 통제하며 동기를 부여하려고 한다. 그런 상태에서 조직에 참여한 자들은 나중에 조직의 진짜 목표들을 깨닫고서 조직을 떠나려고 하는데도 야만적인 이 조직은 이것을 방해하고 있다.

억압과 공허함 속에 있는 이 네 가지 그룹 모두의 공통점은 이슬람을 건전한 자료들에서 배우지 못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슬람의 소박하고 균형있고 모든 이를 껴안고 둘러싸는 모습을 아직 만나지 못 하였으며 이슬람의 기본 개념들을 아직 모른다는 것이다. 신앙은 도덕과 예배

하고 같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무으민은 (진실로 믿는자) 그의 말과 행동으로부터 평안함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것을 배우지 못 하였다는 것이다. '믿음을 가진자들이여! 평화로 온전히 귀의하라' (Baqara, 2:208) 라고 말하는 이슬람의 선행과 은혜를 명하고 학대와 고문을 금지하는 면을 모른다는 것이다.

## DAESH는 이슬람 문서들을 어떻게 남용하는가?

예언자 무함마드는(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길) 이슬람의 원리들을 가르치실 때 이 원리들을 어떻게 하면 잘 이해되는지와 실행하는 방법도 같이 가르치셨다. 즉 일정한 방법을 정하셨다. 그것에 따라 무슬림들은 꾸란과 순나에(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 따라 신앙의 원리와 일상 생활에 대한 활동들의 판결들을 밝히기 위하여 어떤 규칙들을 정하였다. 무작위적인 생각들과 임의적인 해석들과 불규칙한 실행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분야는 예언자 무함마드께서(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길) 직접 규정하시고 사하바에게 (예언자 무함마드의 교우)가르쳐 주셨다. 사하바도 (예언자 무함마드의 교우) 예언자 무함마드께(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길) 배운 종교적 규칙들과 아야들의(꾸



다른
무으민들의
종교적 길을
비하하고
그들을 종교와
신앙 이해에서
빼는 것과
끼블라로(메카-
카바) 향하는
마음들이나
수주드하는
(부복) 이들을
불신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정과는
거리가 멀다.

란의 구절) 설명과 순나들을(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 다음 타비인 (사하바를 따른 자들) 세대에 전달하였다. 축적된 이슬람적 및 과학적 지식은 대대로 그렇게 전달되면서 이슬람적 사상은 일관되고 세련되고 올바르게 이해가 되었다.

이 올바른 이해 외에 있는 이해로 해석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슬람의 목적과 목표를 무시하고 이념적으로 해석하려는 의도로 늘 존재하고 있었다. 오늘 DAESH(다에쉬)도 뒤에 배신과 반항이 있는 주장과 활동들에 근거를 두기 위하여 이슬람적 글들을 악용한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소위 종교적 자료들이 사용되는데 아무런 방법이나 원칙이 고려되지 않고 이익이 있는 것에만 향하는 한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DAESH는 꾸란 구절들과 하디스를(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을 담은 전승록) 이용할 때 아야의 앞뒤를 고려하지 않고 문맥과 다르게 쓴다. 내용과 관련된 나머지 부분들을 알려주지 않고 이슬람의 기본 목표를 무시하면서 해석하고 있다. 그와 같은 착취 예는 다음과 같다.





**DAESH는 지하드라는 (성전) 위대한 개념을 악용하면서 잔인한 접근법으로 무슬림이건 아니건 조직을 반대하는 모든 이들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죽이는 것을 허용한다.**

## DAESH의 직해주의적(Literalist) 스타일과 살라프 스타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DAESH 하고 그와 비슷한 조직들은 자신을 알살라프 알 사리훈 즉 이슬람의 첫 세대와 관련시켜 호응을 얻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찾고 있다. 이 조직들은 살라프에서 자신들의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직해주의적 의향이 있다.  그러나 DAESH는 살라프 스타일로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Wahabbi (와하비) 사상을 삼고 있다. 이 운동은 18 세기에 살았던 무함마드 븐 압둘 와합의 생각에 따라 형성되었으며 나중에 이슬람적 모습 뒤에 현대적 이념이 되었다.

DAESH가 쓰는 문서와 시각 매체들의 근본은 엄격한 와하비 스타일에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슬람의 지혜적인 면을 무시하고 직해와(단어 뜻 그대로 번역) 형태만을 중시하는 DAESH 의식은 광신과 적대감을 부채질한다. 이 사고방식은 이슬람적 및 과학적 지식과 지혜 행위와 도덕을 또는 판결과 함께 예의를 같이 보지 못 한다. 현실적이거나 깊거나 건설적이지 않고 오히려 편견있고 피상적이고 파괴적이다.

예컨대 '창조하시고 자비하심이 그분이 아니뇨' (Araf, 7:54) 꾸란의 이 구절을 조직의 자료들에서 터키에서 진행될 선거를 멀리해야 한다는 판결에 근거로 제시하였다.[1] 사실은 해당 구절에서 언급된 것은 하나님의 우주상의 권리이다. 지구상에서 생명은 그분의 원하시는 것에 맞게 형성되는 일이 인간의 손으로 될 것이다. 그리고 칼리파(예언자 무함마드가 돌아가신 후 움마와(이슬람 공동체) 이슬람 국가의 지도자 ) 역할로 인간에게 통치와 관리하는 책임을 지게 하는 많은 꾸란 구절이 있다.

또 다른 예에서는 이 조직은 꾸란을 피상적으로 또는 일정한 부분들만 선택하여 읽는 것을 추천하며 사전 지식과 경험 없이 꾸란에 접근하는 것을 제안하는 것이 보인다. 이 제안은 조직의 전략에 원칙이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다. 지하드와 관련된 꾸란 구절들은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구절 그룹 안에서 내려진 것을 모르고 꾸란의 지하드에 대한 원리들을 전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예언자 무함마드가(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지하드에(성전) 대한 말씀과 행위들을 배우지 못 한 채 지하드와 관련된 구절들을

1 Konstantiniyye, 1437/4, s. 62 쪽 (DAESH의 온라인 잡지)



앞뒤를 보지 않고 하나씩 골라 읽는 것은 큰 실수이다. 조직의 구성원 중 하나인 아불 베라 알 힌디 라는 사람은 한 영상에서 이렇게 말한다: '꾸란을 펴고 지하드와(성전) 관련된 아야들을 읽으세요, 모든 것은 명백히 이해될 것이다.' 모든 학자들은 나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것은 임무이다, 저것은 임무가 아니다; 저 시기는 지하드 할 시기가 아니다.' 그 모든 것들을 두고





꾸란을 읽으세요. 지하드가 어떤 것인지를 배울 것이에요'[2]

인류를 평화롭게 살게 하기 위하여 임무가 된 숭배 중 하나인 지하드가 인간들을 쉽게 속이고 살아 있는 무기로 바꾸기 위하여 이용하는 것은 병든 이해의 결과일 수 밖에 없다.

---

2 Risale Meftuha 및 doctor İbrahim Avvad al-Bedri al-Mulakkab bi 'Ebu Bekr al-Bagdadi', 4-5 쪽 (http://www.lettertobaghdadi.com/14/arabic-v14.pdf).

## DAESH는 무슬림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한 문장으로 이 질문을 대답해야 한다면, 이 조직에 따라 한 무슬림은 DAESH에 참여한 자 그리고 그의 지배 하에 있는 지역에서 생활하는 자들이다. DAESH는 나머지 무슬림들을 무시하고 그들을 타자화하고 이도교인이라는 것을 주장한다. 즉 DAESH를 순종하지 않고 조직의 급진적 담화를 인정하지 않고 또 숭배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자들은 DAESH의 생각에 무슬림이 아니다. 왜냐 하면 조직의 이념에 따르면, '신앙은 마음으로 인정하고 입으로 표현하는 것과 행위의 실행일 뿐이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안 지키는 것은 사람을 종교에서 퇴출시킨다.' DAESH의 이 잘못된 무슬림과 무으민 이해는 행위에서 부족함을 본 사람들을 불신자라고 주장하고 그들을 죽이는 것을 유발하고 있다.

사실은 아흘리 순나의(예언자 무함마드의 순나를 따라는 자) 대부분을 대표하는 마투리디와 에샤리 전통에 따라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인정이다. 즉 누군가가 하나님의 존재와 일체를 인정하고 신앙 원칙을 믿는다는 것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무함마드(그분에게 하나

님의 평화가 깃들기를)는 그분의 사도이시다' 라고 선언을 하는 모든 이는 무으민이다. 이크라르 즉 그것을 입으로 명백히 표현하는 것은 신앙의 한 부분이 아니라 한 사람이 이승에서 무슬림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행위들 즉 숭배들과 좋은 행동들은 신앙의 필요와 보완이다. 그러기에 먼저 타위히드부터(하나님의 일체를 긍정하는 것) 이슬람의 원칙들을 명백히 부인하지 않고 이 원칙들을 비하하지 않는 이상 죄인도 되지 않고 신앙을 잃지도 않고 불신자라고도 불릴 수 없다. 이슬람 학자들은 이 원칙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예배를 드리는 자는 불신자라고 불릴 수 없다.'

## DAESH는 Takfir(탁피르) 이해로 무엇을 얻는 것인가?

Takfir이란 한 무슬림 또는 무슬림이라고 알려져 있는 사람에 대하여 불신자라는 것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역사적으로 다양한 시기에 이념적 무기로 이용되었으며 다양한 조직의 상대자를 탁피르 하는 것으로 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외면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예언자 무함마드는(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과 자신이 그의 사도인 것을 믿을 때까지 사

람들과 싸우는 것을 소임으로 했으며 칼리마이 알 타위흐드 ( 하나님 외에는 숭배받을 존재가 없으며 무함마드는 하나님의 사도이다 ) 를 말하는 자들의 피와 소유물이 보호하에 있다. 끼블라(메카의 카바를 향한 방향)로 향하여 예배드리는 자들은 하나님과 예언자 무함마드로 부터 지켜진다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이들에게 아무도 불신자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 하셨다.한 무슬림을 불신자라고 호칭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신이 불신자가 된다는 것을 통보하셨다. (Bukhari,Iman, 17, Salat 28, Aiman, 7; Abu Dawood, Jihad ,95).

오늘도 DAESH는 자신을 반대하고 그의 실제 얼굴을 보여주는 조직부터 정치적 적이 된 모든 자들을 불신자라고 주장한다. 사람들을 탁피르하는 이유들 중에 선거에 참여하는 것,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 법원에 신청하는 것, 학교에 다니는 것 등의 사회 생활에 대한 것들이 있다. 비이성적으로 무슬림들이 불신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Ahl al Sunnah (순나를 따르는 자들)의 길과 멀어지게 되고 움마의(무슬림들) 단일성와 우정에 분명히 피해를 준다. 수백만명의 무슬림을 겨냥하는 이 행동은 사실은 조직이 편하게 행동할 공간을 만들고 파괴와 억압을 위한 소위 종교를 이용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든다. 그들의

목적은 사회에 이슬람을 소개하거나 이슬람을 좋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테러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 DAESH는 시르크 주장으로 역사적 유산을 어떻게 없애는 건가?

'시르크' 란 모든 것을 창조하고 관리하시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하나님과 동일화하는 것을 뜻하다. DAESH의 중요한 실수들 중 하나는 무덤과 묘지 방문과 시르크를 관련시키는 일이다. 묘지 방문을 하고 이슬람만 따르고 산 중요한 분들의 무덤을 방문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자들을 시르크 하는 자들이라고 정의하는 이 조직은 무덤을 방문하는 무슬림들을 보고 무시릭들에(예언자 무함마드 생전에 반대하는 비무슬림) 대한 꾸란 구절들을 예로 든다.[3]

무덤들을 예배 자리로 만드는 것과 묘지 속 죽은 자들에게 비는 것은 사람을 시르크로 끌어낸다. 그러나 들어갈 때 인사하고 예언자 무함마드의(그분에게 하나님께서 평화가 깃들기를) 순나(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에 맞게 하는 묘지 방문은 올바

3 Konstantiniyye, 1436/2, 4- 8쪽 (DAESH의 온라인 잡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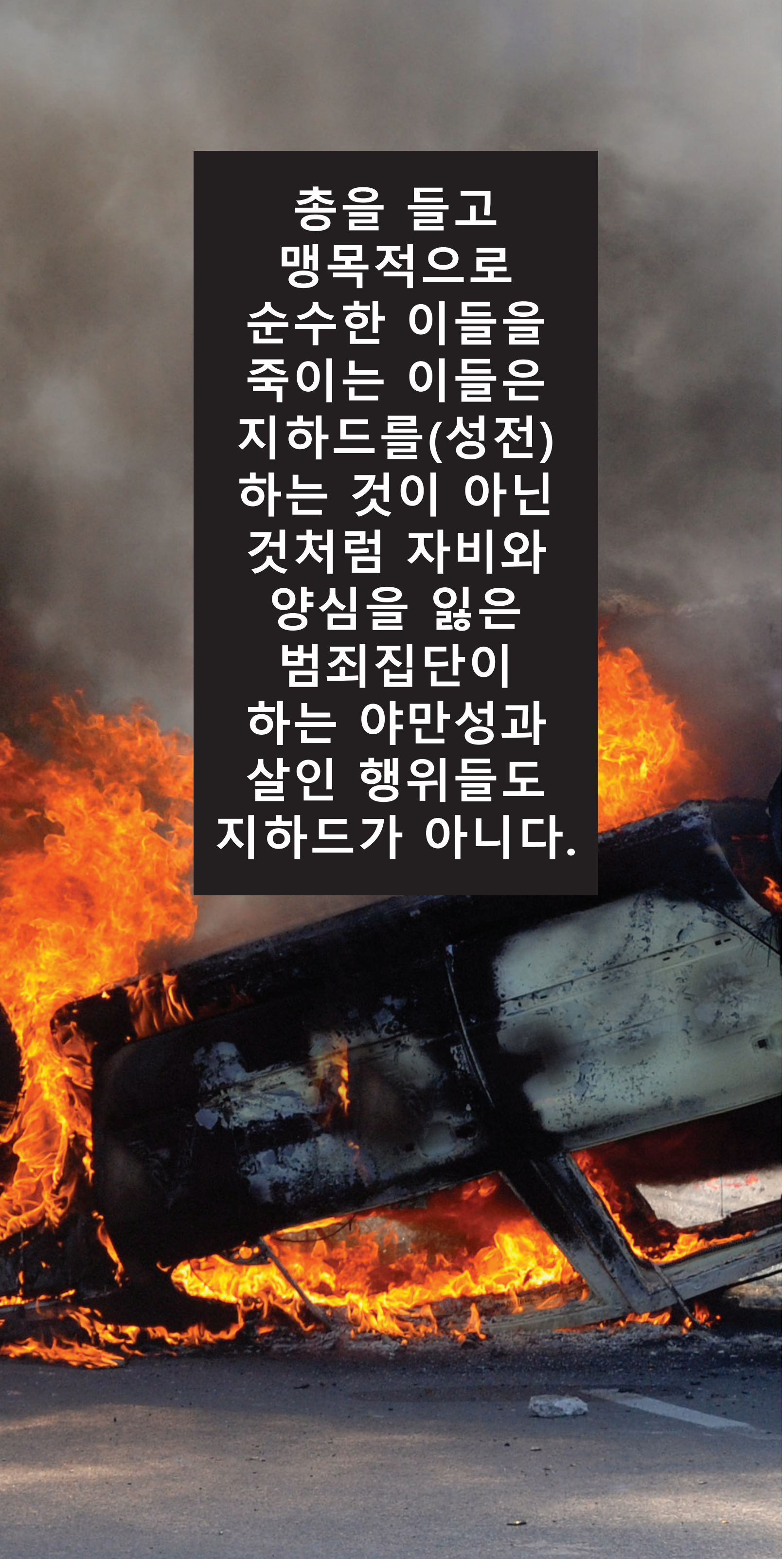


**DAESH는 문화 유산과 예술작품을 (소위) 종교적 이유들로 파괴하는 것은 이슬람에 문화,예술과 아름다움이 없다는 생각을 세계에 퍼뜨리고자 하는 목표에 있다.**

른 행동이다. 제정신인 모든 이들은 그 두 행동 사이에 있는 차이를 구분할 수 있다. 모든 무슬림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특징과 행동에서도 하나 뿐이시라는 것을 믿는다. 오직 그분께만 기도드리고 오직 그분께만 무엇을 빌고 또 모든 기도들은 그분의 도움과 은총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기억하고 교훈을 얻기 위하여 하는 올바른 방식의 묘지 방문은 시르크와는 상관없다.

DAESH가 무덤 및 묘지 방문과 시르크를 관련시키는 것은 역사적 유산의 파괴와 문화에 대한 적대감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태도의 명확한 예로 예언자들의 무덤으로 여겨지는 무덤들을 비롯하여 유적지들이 파괴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그것과 관련된 하디스들을 역사적과 사회적 맥락에서 멀어지게 하는 DAESH는 이 하디스들을 무덤 파괴를 위하여 악용한다.

이 파괴들로 박물관에 있는 조각상들과 신전 역할을 하는 역사적 공예품들도 훼손되었다. 조직의 구성원들은 옛날 국민들의 유산과 문화들의 유산을 없애고 이것을 '우상을 파괴하기' 라고 정의하고 소위 종교



총을 들고
맹목적으로
순수한 이들을
죽이는 이들은
지하드를(성전)
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자비와
양심을 잃은
범죄집단이
하는 야만성과
살인 행위들도
지하드가 아니다.

적 모습을 가지게 한다.[4] 사실은 지구상을 돌고 있는 역사의 흔적들에서 교훈을 받는 것을 조언하는 꾸란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들은 마음과 귀로써 지혜를 듣고 배우기 위해 지상을 여행하지 아니 했더뇨 실로 장님이 된 것은 그들의 눈들이 아니라 그들 가슴속에 있는 마음들이라.' (Hajj, 22:46)

역사적 유산을 파괴하는 DAESH는 인간이 다양한 과정에서 하나님의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와 살았는지를 이해할 기회를 주는 역사의 흔적들을 지운 것으로 예지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예언자 무함마드의(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저명한 교우이신 우마르는 샴과 바이탈 막디스 라는 지역들을 정복하셨을 때 예언자들의 무덤으로 간주되어 있는 건물들을 파괴하지 않고 교회나 시나고그들에 손대지 않았다. 압둘라 븐 우마르 와 사읻 븐 알 무사이입 같은 살라프 살리힌의(이슬람의 첫 세대) 지도자들이 예언자 무맘마드의(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연단 옆에서 기도하였다. 살라프는 종교와 관련된 역사적 추억들에 대한 태도는 명확하게 보이

4 Konstantiniyye(DAESH의 온라인 잡지), 1436/1, 25-27 쪽; 1436/3, . 68-69 쪽; Dabiq, 1436/8, 22-24 쪽.

는데 자신들을 '신 살라프 (neo-salafi)'라고 정의하는 이 테러 지지자들이 이슬람 문명이 태어나고 발달된 도시들에 있는 흔적들을 지우는 것은 너무 한심한 일이다.

DAESH가 문화적 유산과 예술품들을 소위 종교적 이유들로 훼손하는 것이 이 조직을 만든 이들의 목표들과 맞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슬람 문화가 예술과 아름다움이 없다는 생각을 퍼뜨리고 싶어하며 유사이래 서구의 자료들에서 이슬람문화에 대하여 야만스럽다는 비방을 청년들 머리속에 새기고자 한다.

## 피탄 이야기들과 DAESH는 무슨 상관인가?

'피탄'이야기들은 최후의 날이 다가왔을 때 생길 일들과 최후의 날을 알려주는 몇 가지의 표시들에 대한 전달된 이야기들이다. 유사 이래 서로와 싸우는 조직들이 자기의 자리를 굳힐 목적으로 예언자 무함마드의(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권력을 이용하려고 시도하였고 많은 이야기들을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오독하고 교활하게 이용한 것이다. 다양한 종교적과 정치적 이유들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및 전쟁과 관련된 피탄 이야기들도 포함된다.

DAESH는 자신에게 신성한 의무를 주는 말을 최후의 날에 가까운 시간에 무슬림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일어날 전쟁과 관련시키는 것이다. 이슬람 자료들에서 '알 말하마 알 쿠브라' 라고 불리는 이 전쟁에 대한 전달된 이야기들을 원래 맥락과는 다르게 사용하고 이 이야기들을 선전 수단으로 쓴다. DAESH는 근본으로 삼는 이야기들에 따르면 오늘 시리아 내에 있는 '아막' 또는 '다븍' 이라는 지역들에서 무슬림들과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대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최후의 날이 오지 않을 것이다. 기독교인들 앞에 나온 무슬림 군대는 메디나에서 이동하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 치열한 전쟁에서 무슬림들은 승리할 것이며 이스탄불을 정복할 것이다. 전상자들은 검을 올리브 나무에 걸고 전리품을 나누는데 다잘이 (천지개벽이 있을 때 이 세상에 올 악마) 등장하여 남은 가족들이 안전하지 않다는 소문이 나올 것이다. 무슬림들은 샴에 돌아가서 전쟁 준비를 했을 때 예언자 이싸 (예수) 가 나타나서 다잘을 죽이실 것이다.(Muslim, Fitan, 34 쪽).

DAESH는 이 이야기를 갖고 본인을 이슬람의 군대인 것을 주장하고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하고 다븍 전쟁의 시간이 왔다는 것을 주장하면서 봉사자들을 자신

의 편에서 싸우게 하기 위하여 시리아로 초대한다. 사실은 DAESH가 죽이는 이들도 무슬림이고 파괴한 도시들도 무슬림들의 도시이다. 예언자 무함마드는 (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전쟁터에서까지 도덕적인 태도를 조언하셨으며 시민들,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과 종교인을(모든 종교들의 종교인) 죽이는 것을 금지하시고 복수를 위한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으셨다.

## DAESH의 소위 칼리파(예언자 무함마드가 돌아가신 후 움마와 (이슬람 공동체) 이슬람 국가의 지도자) 국가 주장이 진짜인가?

온 세계의 무슬림들의 유일한 대표자라는 주장으로 활동하는 DAESH는 자신에게 (소위) '이슬람 국가' 라는 이름을 지었으며 조직의 지도자도 (소위) 칼리파가 된 것을 발표하였다. 조직은 바그다드의(DAESH의 지도자) 칼리파 지위가 이슬람에 따라 정상인 것의 바탕을 만들기 위하여 선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책과 책자를 출간하였다. 심지어 칼리파 체제의 조건 중 하나로 꼽히는 쿠라이시족에(예언자 무함마드의 족) 속해 있다는 것에 중시하고 바그다드의 족보를 후세인을(예언자 무함마

드의 손자) 통하여 예언자 무함마드까지(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가는 가짜 족보를 만들었다. 그 족보가 가짜라는 사실이 나중에 증명되었다.

DAESH는 오늘날 이런 소위 칼리파 모델을 되찾고자 하는 것은 사실 오랫동안 무슬림에게 얻은 존경과 가치를 착취하고자 하는 노력일 뿐이다. 칼리파 체제와 이마마에(예언자 무함마드가 돌아가신 후 무슬림 사회의 정치적 및 종교적 지도가 되는 체제) 하는 강조는 이 개념들의 역사적 이미지를 악용하고 조직의 구조를 강화시키고자 한다. 이런 관점에서 DAESH가 내새우는 구조는 칼리파 체제의 조건들을 지니고 있는지 그 여부를 조사하는 것까지 무의미하다. DAESH는 칼리파와 이마마 개념들을 조직의 목표들을 위하여 악용한다는 것에는 이슬람 문명의 단일성, 연대와 우정을 훼손할 목적이 있다.

## DAESH는 다르 알 이슬람 이라는 (Dar al Islam) 개념을 어떻게 왜곡하는가?

'다르 알 이슬람(Dar al Islam)은 무슬림들이 통치하는 나라들을 의미하고 '다르 알 하르브(Dar al Harb)는 비무슬림들이 통치하는 나라들을 정의하기 위하여 사용되

는 법적 및 정치적 개념들이다. 이슬람의 첫 세기들에서는 그 두 개념이 형성시킨 국가들 간에 상태가 달려졌으며 무슬림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나라들을 위하여다르 알 술흐(Dar al Sulh), 다르 알 아흗(Dar al 'Ahd), 다르 알 짐메(Dar al Dhimma) 같은 개념들이 만들어졌다.

실은 역사속 어떤 시기에 사회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고 법칙을 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개념들을 그대로 오늘로 가져와서 탁피르할 이유를 만드는 것은 잘못이다. 다르 알 이슬람(Dar al Islam)과 다르 알 하르브(Dar al Harb) 같은 개념들은 이슬람 학자들로 부터 시간과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다루어져 해석되었다. 그런 개념들은 국제 법적, 정치적 또는 상업적으로 다루고 이슬람 학자들의 부유한 지식으로 다시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무슬림권 나라들의 현재 정치적 구조를 고려하는 개념들을 사용하는 것이 선호되어야 한다.

이슬람 국가라는 이름으로 무슬림들의 유일한 대표자라는 것을 주장하는 DAESH는 다르 알 이슬람(Dar al Islam)이라는 표현을 자신의 지배 중인 지역을 위하여 쓴다. 그 지역 외에 있는 모든 지역들을(무슬림권 나라들마저 포함) 다르 알 하르브(Dar al Harb)라는 발표를 한 조직은 무슬

림들을 세계에서 하나님의 규칙들이 실행되는 유일한 곳인 자신들의 지역으로 (소위) 칼리파 땅으로 부른다. 이 상황은 조직의 전략을 강화시키려고 피크흐(이슬람 법학)라는 개념을 악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 DAESH는 지하드 개념의 명의를 어떻게 훼손하는가?

'지하드란(성전) 이슬람에 초대하는 것과 이슬람에 따라 사는 길에 개인들이 본인의 욕심과 싸울 때와 밖의 적들과 싸울 때 최선을 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무으민이(실로 믿는자) 악한 이들과 악과 하는 모든 싸움은 좋은 것과 이슬람적 및 과학적 지식을 위하여 하는 노력은 지하드에 포함된다. '하나님의 길에서 성전하라' (Hajj, 22:78) 아야와 '손으로, 말과 재산으로 성전(지하드)하라' (Nesai, Jihad, 48) 라는 하디스는 이 포괄적인 의미의 예다.

DAESH는 지하드할 목적으로 이슬람에 없는 고문, 박해, 대량 살인과 죽음을 보여주는 일과 같은 비인간적인 행위들을 관련시키고자 한다. 지하드가 가진 '적과 싸운다'는 뜻까지 넘는 이 극단적이고 잔인한 태도는 무슬림이건(이슬람을 믿는자) 아니건 조직을 반대하는 모든 조직들을 남녀노소 불문하고 죽이는 것을 용인하다. DAESH에 따라 꾸란의 한 개념인 지하드

죄가 없는
사람들을 죽이기
위하여 자신을
죽이는 것을
'순교' 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
무슬림에게든
비무슬리에게든
아무 누구에게
또 사회에 이런
공격들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는 전쟁만을 상징하고 지하드 의무를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조직을 따르고 폭행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슬람에서 지하드는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는 것이다. 지하드는 인류에 평화, 평온과 번영을 가져오는 것과 잘 살게 한다는 것을 뜻한다. 지하드는 하나님의 길에서 행하는 노력이며 진실과 공평을 위한 싸움이다. 성스러운 가치들을 지키는 것과 세상의 불공평함을 막기 위하여 몸, 말, 생각과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총을 들고 맹목적으로 순수한 이들을 죽이는 자들은 지하드를 하는 것이 아니며 자비와 양심을 잃은 범죄집단이 하는 야만성과 살인 행위들도 지하드가 아니다. 오늘 이슬람의 지하드 이해와 상관 없는 테러 활동들이 지하드라는 개념을 착취하는 것은 이슬람에 대한 공포를 퍼뜨리면서 가장 큰 피해를 무슬림들에게 준다.

DAESH가 죄없는 사람들, 무슬림과 시민들을 향한 폭행들을 지하드라고 하는 것은 이슬람에 대하여 저질러진 죄다. 야만적으로 이루어진 살해들을 이슬람과 관련시키는 것은 조직의 이득을 위하여 지하드라는 개념이 어떻게 남용되는 것을 보여준다. 전쟁에도 윤리가 있는 것을 가르치신 자비의 예언자이신 예언자 무함마드의(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순나가(예언자 무함마드의 언행) 위반되면서

'적이 평화쪽으로 기울인다면 그쪽으로 향하라 그리고 하나님께 의탁하라 실로 그 분은 들으심과 아심으로 충만하시니라.' (Anfal, 8:61) 이라고 하는 꾸란의 구절들이 외면되면서 사람들이 지하드에 대한 건전한 인식을 지니는 것이 방해된다.

## DAESH는 이스티쉬하드 (Istishhad) 거짓으로 누구를 이용하는가?

이스티쉬하드 (Istishhad)란 순교할 의도로 죽음으로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급진적 테러 조직들의 이해에서는 자살 공격을 말한다. DAESH에 따르면 한 사람이 자살 폭탄 테러범 역할을 맡는 자살 공격들은 허락되고 그것은 도덕적인 활동들에 포함된다. 조직이 이 활동들을 변호하는 이유는 공포를 퍼뜨리는 전략이라는 점에서 유익하다는 점에 있다. 그들의 말에 의하면 '이슬람 국가가 한 정복들의 대부분의 문을 이스티쉬하드 운동들이 열었다. 세상에서 특이한 이 특징을 가진 유일한 국가는 이슬람 국가이다. 이슬람 국가에서든 다른 국가에서든 수천만 명의 칼리파의 군인들이 그 행위를 실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5]

사실은 이슬람이 사람들에게 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는 생명 안전이다.

5 Konstantiniyye, 1436/3, 43 쪽 (DAESH의 온라인 잡지)

꾸란에 의하면 법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에 사람을 의도적으로 죽이는 것은 모든 인류를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 일을 저지르는 사람의 벌은 안에서 영원히 남을 지옥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노여워 하고 저주를 하시며 무서운 벌을 준비하시니라'(Nisa, 4:93). 같은 식으로 아무도 자신에게 주어진 몸을 죽일 수 없으며 자신의 삶을 끊을 수 없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싸운다고 착각하는 정신을 잃은 이들은 자살 공격으로 '좋은 것을 위하여 간다' 라고 하면서 사실은 악으로 가고 있고 '천국으로 간다' 라고 하면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다.

DAESH는 순교라는 개념을 남용하는 것이 과거에서 '더 아사신스' 이라고 알려져 있는 조직과 똑같다. 하산 사바흐는 (더 아사신스의 지도자) 추종자들을 자신이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게 했으며 상상의 허구들에 꾸란 구절들을 증거로 보여주었다. 또 천국 약속으로 손에 칼을 드는 청년들을 사회에 나가게 하고 무슬림을 무슬림에게 죽이게 했다.

하지만 죄가 없는 사람들, 여성들과 아이들의 죽음을 만드는 행위를 위하여 자신을 죽이는 것을 '순교' 라고 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무슬림에게든 비무슬리에게든 어떤 누구에게 또 사회에 이런 공격들을 하는 것이 옳지 않다. 자살 폭탄 테러법을 자살이라고 부르지 않고 순교한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이 순교라는 위대한 개념을 악용하는 것일 뿐이다. 순교는 이슬람

과 무슬림들을 공격하는 자들과 전쟁터에서 싸울때 죽은 또는 억압의 결과로 죽여진 이들이 이르는 위대한 지위이다. 죄없는 이들을 죽이는 것의 이름은 순교가 아니라 살인이다.

## DAESH가 방송하는 공포적인 영상들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일까?

DAESH가 피해자들을 처형할 때 고문을 하는 것과 공포 영상을 얼론에 올리는 것은 한 면으로 사람들을 협박하는 것과 선전의 목적이 있다. 테러는 공포로 커지고 협박과 억압으로 강해지기 때문이다. 테러를 일으키는 이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협박 하고 정신적으로 주는 피해가 얼마나 많으면 본인들이 그 정도로 성공했다고 본다. 그러나 이 활동들로 목표하는 것은 이슬람과 그의 예언자와 그의 가치들에 대하여 불안을 온 세상에서 일으키는 것이다.

이런 영상들은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공유하는 것은 소셜미디어를 자주 쓰는 청년들이 이슬람의 안전, 신뢰, 연민을 주는 분위기로 향하는 것을 방해할 목적에 있다. 야만적인 영상들을 차단하거나 웹사이트에서 삭제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 영상들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또 다른 면이다.

사람을 참수하는 것은 당연히 이슬람적인 행동도 인간적인 행동도 아니다. 동물들까지 고문하는 것을 금지하신 예언자 무함마드는(그분의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전쟁터에서까지 잔인하게 싸우는 것을 금지하셨다. 그 분은 싸우러 가는 군대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전쟁터에서 과장하지 말고 고문과 복수심을 멀리 하라고 하셨으며 또 노인들, 여성들, 아이들과 종교인들에게 (모든 종교들의 종교인) 손대지 말라 하셨으며 나무를 자르지 말라고 명하셨다.' (Muslim,Jihad and Prophetic biography, 138 -무슬림이 전하는 하디스) 그래서 소셜미디어에서 고문과 잔인한 영상들을 공유하는 것은 좋은 의도나 이슬람의 원칙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

## 폭력으로 종교를 착취하는 것과 어떻게 싸울 수 있을 까?

- 먼저 사람을 교육하는 방법 특히 종교 교육과 양육 방법을 재고합시다.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에게 이슬람을 가르칠 때 꾸란 구절들이 내린 이유들, 하디스들의 지혜와 목표의 다른 구절과 하디스들 사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얘기해봅시다. 종교적 글들의 진실성에 주의하고 의미를 바꾸지 않고 임의적인 해석들을 허락하지 않는 신뢰할 만한 자료들과 만나게 해야한다. 1400년을 넘은 이

슬람 전통에서 형성된 종교적 독서, 종교적 이해하기 및 해석 방식들이 방치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 바쁜 일상 생활 속에서 생계비를 벌 때 아이들을 방치하면 안 된다. 아이들이 누구와 친구가 되는지, 시간을 어디에서 보내는지, 무엇을 읽는지와 가상 세계에서 어떤 네트워크에 있는지에 대하여 주의하면 좋겠다. 사랑, 관심과 인도를 만나지 못한 청년들이 왜곡된 종교적 정보를 주는 통로들에 속고 급진적인 조직들의 관심사에 들어갈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 한 무슬림은 믿음, 행동과 도덕으로 노숙한 경지에 이를 것을 또 형태와 모습을 넘을 수 없는 행위들이 인간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을 신세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오직 직위, 세력, 권력이나 돈과 같은 세속적인 이득으로만 제한된 삶은 무슬림의 삶과 멀다는 것과 이슬람은 이승의 이득만이 아니라 저승의 이득도 추구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 이슬람은 오직 무슬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와 이 우주를 공유하는 모든 생물들을 위하여 자비와 공평성을 제공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 이슬람은 공포와 폭행의 종교가 아니라 반대로 자비와 평안의 종교라는 것을 얘기해야 한다. DAESH와 그와 같은 테러 조직들이 일으키는 이슬람 공포증과 (Islamophobia) 모든 곳에서 싸워야 한

다. 무례하고 도외시하는 또 탁피르를 (무슬림을 부정 믿음 행동에 의해 불신자로 여겨지는 것을 의미한다) 쓰는 언어로 이슬람을 알려주는 것을 용인하면 안 된다. 예언자 무함마드가(그분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깃들기를) 보기가 되는 것으로 자상하고 안아주는 또 부드러운 방식으로 종교를 얘기합시다.

- 꾸란의 표현으로 `중용의 공동체` (Baqara, 2:143) 가 되는 길을 위하여 노력을 합시다. 과도하게 행동하지 말고 균형과 가는 길을 지키고 여러 다양한 사치를 멀리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이런 사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만드신 한계를 넘지 않고 어떤 일이든 제대로 하고 금지된 것에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 하며 균형을 지키는 사람들로 구성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다.
- 광신과 그가 일으킬 수 있는 불화들을 멀리 합시다. 광신은 판단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무엇을 믿고 옳고 그름을 알아보지 않고 그것을 믿는 것을 계속하고 그것에 반대하는 모든 생각과 이해를 적대시한다. 종교적 이해를 따르고 그 후 진실의 유일한 단면만을 대표로 보는 것을 광신이라고 한다. '맞는 것을 찾고 해방을 찾는 유일한 생각은 우리만의 생각이다' 라는 이해는 개인뿐만 아니라 그룹들까지 참사로 끌어 든다. 다른 무으민들(이슬람을 실로 맏는자) 의 종교적 길을 비하하고 그들을 종교와 신앙 이해에

서 빼는 것과 끼블라로(메카-카바) 향하는 마음들이나 예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불신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정과는 거리가 멀다.

- 종교의 원칙들과 변하지 않는 원칙들 외에 개인적이고 사회적 인생에서 변하고 발달하는 필요성에 대한 꾸란과 순나를 근거로 하는 새로운 해결 방법들도 있다. 어떤 개념들은 역사속 그대로의 의미로 전달되는 것과 어떤 개념은 의미 변이가 생기고 이념적 이득을 위하여 악용되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
- 이슬람이 이해되고 실행되는데 우리들의 삶을 편하게 해주는 종파들과 종교의 기본 원칙들과 모순이 되지 않는 해석들을 풍요로움이라고 보면 된다. 일정한 종파만을 높이고 다른 종파들을 선택한 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무시하고 심지어 폭력으로 자신의 의견을 다른 이들에게 억지로 받아드리게 하는 이들은 종파 차이들로 무슬림들을 서로 등돌리게 하고 나누려고 하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다.
- 수세기 동안 터키에서 생기고 종교 생활을 지켜주는 아나톨리의(Anatolia=터키 반도의 다른 이름) 지혜를 지켜야 된다. 이슬람 전통은 틀린 신념과 멀어지게 하고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들로 커지는 것에 대하여 노력을 해야 한다. 이슬람의 도덕과 미덕 그리고 정신적 깊이를 강조하고 우리들의 단결과 연대 또 우정을 지켜야 된다.